생명나눔부산, 공감기부 프로젝트 점검

1월 17일 국제신문서 간담회 열고
1년간의 성과 점검과 새출발 다짐

환우 사연 공개하고 댓글 창 운영
부산은행 월 기본 100만 원 전달
공감댓글 한 개당 1000원 기부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생명나눔부산은 1월 17일 국제신문 사장실에서 '난치병 환우에게 새 생명 캠페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이하 생명나눔부산)가 1월 17일 국제신문 사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감기부 프로젝트-난치병 환우에게 새 생명을 캠페인'의 2022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간담회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과 이승표 부본부장, 이영숙, 복춘희 이사를 비롯해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이노성 편집국장, 오상준 미래전략실장, 최영지 독자여론부장, 이기영 부산은행 사회공헌홍보부 부장, 김지근 부산은행 사회공헌홍보부 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심산 스님은 "난치병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공감기부프로젝트를 위해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BNK 부산은행과 국제신문에 감사하다"며 "공감기부프로젝트는 이 시대 문화를 반영해 기부문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공감기부 프로젝트-난치병 환우에게 새 생명을 캠페인'은 난치병 환우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하고 사연을 접한 시민들이 댓글을 적으면 기부가 되는 방식이다. 사연에 공감한 시민이 댓글로 응원의 글을 적으면 댓글 횟수에 따라 치료비가 늘어난다. 기부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손쉽게 이끌어내고, 기부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다.

공감기부 프로젝트는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국제신문이 공동기획해 플랫폼 운영과 사연 안내에 동참하고 있다. 생명나눔부산은 매월 2명의 환우를 선정하고 국제신문은 환우들의 사연을 매월 2, 4주 금요일 국제신문 사람 & 이웃 면에 게재해 안내한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사회공헌 홈페이지에 사연을 담은 기사를 올리고 댓글 창을 운영하고 기부한다. 부산은행은 매월 기본 100만 원을 환자에게 전달하고 시민의 공감 댓글 한 개당 1000원씩 기부금을 늘린다. 공감기부 프로젝트는 2015년 5월부터 시작해 총 158명의 환자에게 기부금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24명의 환자에게 2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해 1월 첫 번째 공감기부는 상세불명 뇌전증을 앓고 있는 박원우(10세, 가명) 어린이 사연이 소개됐다. 박원우 어린이는 만2세 당시 짧은 경련이 있었고 이후 잦은 발작과 경련을 겪었다.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을 진단받았으며 언어 지연 및 ADHD 증상도 함께 겪고 있다. 현재 학교를 다니지만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없는 상황이며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기부는 http://www.happybnk.co.kr/ 공감기부 프로젝트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설맞이 자비나눔

설맞이 '용福만福 용호福' 개최
떡 등 선물꾸러미 지역민 전달
떡메치기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1월 19일 복지관 내에서 설맞이 사랑나눔행사 '용福만福 용호福'을 개최했다. 사진은 내빈들이 어르신들께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1월 19일 복지관 내에서 설맞이 사랑나눔행사 '용福만福 용호福'을 개최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독거어르신 및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한마당을 개최하고 풍성한 새해를 기원했다. 이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떡국떡과 오곡세트, 김, 약과, 유자차, 과일 등을 담은 선물꾸러미를 지역민에게 전달했으며, 용호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세배와 축하공연, 설맞이 떡메치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문수복지재단 이사장 지원 스님과 서은해 관장을 비롯해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가족들과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소박한 선물이지만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오늘 선물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준 후원자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은해 관장은 "오늘 전달하는 선물은 후원자님들의 정성을 가득 모았다. 행복꾸러미라는 이름처럼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눌러 담았다"며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풍성하고 기쁨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은 1월 13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엠에스코리아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했다.

마스크는 엠에스코리아(대표 손희만)와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본부장 안정하)가 지원했으며 KF94 마스크 1만 장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방역물품 후원이 줄어들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한창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에 비해 방역물품과 관련된 후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가정방역 및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한 마스크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감염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선정 가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주불교회관 보현의 집,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도시락 250여 개 어르신들에 전달
대중 후원 7년째 무료급식소 운영
마가 스님, 성금 200만 원 등 후원



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이사장 홍수승, 센터장 안정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법회 및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이사장 홍수승. 센터장 안정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법회 및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월 18일 진주불교회관 보현의 집과 회관입구에서 열린 이날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에는 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 센터장 안정임, 경남포교사단부단장,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옥천사 여명회, 오미숙 보리팀 포교사팀장 등 지역포교사, 김동호 장애인협회 사무국장과 회원, 구영석 비봉로타리클럽 대표, 이성필 서경로타리클럽 대표, 성북동 사회복지사 회원, 진주불교회관 불자들이 동참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흰쌀밥, 소고기 미역국, 오리훈제야채볶음, 오이무침, 양념두부, 김치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 250여 개는 진주불교회관 입구에서 어르신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거동이 불편한 30여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특히 마가 스님과 전국자비명상회원, 옥천사 여명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만 원과 백미 10kg 10포, 바나나, 밀감을 후원했다.

안정임 보현의 집 센터장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 포교사분들이 후원해 주어 매주 수요일 마다 어르신들에게 250~300여 분의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고 회고하며 "마가 스님께서 진산식을 대신한 마음약방 콘서트로 법회와 지역불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기쁘며 후원하고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가 스님은 "자비명상회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후 옥천사 주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도 나눔을 하고자 일부 남겨둔 200만 원과 쌀 10포를 가져왔다"며 "상구보리를 위해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는 것과 하화중생을 위해 봉사하는 진주불교회관의 모습을 보고 이분들에게 힘을 줘야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했다. 오늘을 계기로 옥천사 신도들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7년 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되고 있는 진주불교회관 보현의 집 무료급식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시 운영이 보류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재개됐다.

진주불교회관 보현의 집은 진주불교회관 중창불사의 초석을 놓았고 최근 입적한 사천 평안사 보선 스님의 '정심보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다. 불자들의 1인 1만 원 CMS 후원과 스님들의 보시, 지역봉사 단체들의 자원봉사와 물품 보시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보현의집은 보시된 물품 및 보시금을 어르신들과 노숙자, 장애인의 점심공양, 장애인 장학금등 어려운 이웃 등 여러 곳에 회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신년하례식 봉행

대웅 스님 등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대한불교전통조계종이 불기 2567년 신년하례식 및 종정예하 사바강탄 72세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월 15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본산 각황사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은 총무부장 도연 스님의 사회로 개회사, 삼귀의례,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총무원장 원산 스님 인사, 감사패 및 임명장 수여, 선왕 추대기 및 옥새전달, 신년하례, 청법게, 입정, 법어, 공지사항, 사홍서원,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능인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여러분 마음은 부처로 만들어져 있다. 부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있다. 그 마음을 찾아서 평생 참다운 부처가 되길 바란다"며 "마음속의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한 가지라도 남아있으면 번뇌 속에 인간의 탈을 쓰고 고통 속에서 살겠지만 그 번뇌를 벗어나 마음속을 비워 108번뇌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원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석능인 종정예하 사바강탄 72세 기념과 문도스님들의 참석에 감사드린다"며 "세계불교교황청이 발전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불교교황청이 되어 평화로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창립기념법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한 도법 스님과 설송 스님에 대한 감사패 증정, 새해 임원에 선임된 부종정 대웅 스님, 포교원장 설송 스님, 승정원장 운봉 스님, 총무부장 도연 스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이어졌다. 또 작년 4월에 룸비니 동산에서 선왕으로 추대된 문도스님 중 운봉 스님에게 교황청기 및 옥새가 전달됐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대중 스님들은 능인문도 대웅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수승한 인연을 함께한 공덕으로 오교삼장 일대 시교를 거울로 삼아 수행가풍을 세워 도제양성교육에 전념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가피를 내려 달라"며 "뜻하는 바 거룩한 소망들이 낱낱이 모두 성취되어 마침내 무상보리를 이루어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갚아나갈 것"을 서원했다.

이날 법회는 교황청장 석능인 대승통, 능인문도 석대웅 스님, 전권대사 운봉 스님, 총무원장 원산 대승정, 만불정사 도연 스님, 금강사 청명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미소원, 설 한파 녹이는 나눔 행사

떡국떡·강정 등 400세대 분 전달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1월 17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따뜻한 설명절 보내기'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미소원은 관내 어려운 주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를 기원하며 100만 원 상당의 떡국떡과 강정 100세트, 총 400세대 분을 마련했다. 선물은 수정5동행정복지센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신선한 떡국떡을 전달하기 위해 새벽에 떡국을 받아 포장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추가로 넣고자 정성을 다했다"며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나누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니 미소원의 마음을 잘 전달 받으셔서 미소 짓는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홍은란 수정5동행정복지센터장은 "미소원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소원 덕분에 많은 분들이 따뜻한 설날을 보낼 것 같다"며 "이사장님과 봉사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떡국떡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사단법인 미소원은 2011년 11월 11일 설립한 재가 봉사단체로, 부산구치소 재소자 신행상담과 국립마산 결핵병원 후원, 무연고 독거 어르신 반찬지원, 명절음식(떡국떡, 강정) 지원 등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JTS 인도 불가촉천민 지원, 우물파기 등 해외구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남구불교聯, 이웃돕기 자비나눔

성금 300만 원·백미 4000kg 전달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가 1월 17일 부산남구청 청장실에서 이웃돕기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웃돕기 자비나눔은 새해 설날을 맞아 지역 내 소외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성금 300만 원과 백미 4000kg을 전달했다. 성금 및 성품은 부산 남구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 소외이웃 및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 부회장 능후 스님, 감사 대각 스님, 사무총장 호명 스님과 오은택 남구청장, 박화자 문수사 신도회장,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 김두찬 부산남구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코로나 19로 인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원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지역 내 경제 침체로 소외 이웃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신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원하며 따뜻하게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매년 남구불교연합회는 따뜻한 후원으로 지역민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계시다"며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